

Summer in Atlanta

Emory University Hospital Cardiothoracic surgery

본과 4 학년 김서영

졸업을 약 반년 앞 둔 시점에서 나는 미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누군가 나에게 거기서 무엇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지 묻는다면 나는 아마 모든 것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거기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 모두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 미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소중한 값진 경험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는 학교에서 계획하는 '해외 의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약 한 달간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다. 에모리 대학병원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병원으로 미국 남부에서 매우 유명한 병원이다. 많은 과 중에서 어떤 과를 돌게 될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수술에 관심이 있었던 나로서는 여러 수술과 중에서 실습을 돌아보지 못한 흉부외과를 고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에모리 대학병원은 흉부외과가 유명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직접 가보니 에모리 대학병원은 매우 멋진 곳이었고, 애틀랜타는 매력적인 도시였다. 이 곳에서 병원 실습, 숙소 아이들과의 친목, 애틀랜타 관광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1) 에모리 대학병원 흉부외과

병원 실습은 첫 날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했다. 오리엔테이션은 downtown 의 Grady 병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곳에서 에모리 대학병원에 실습하러 나온 모든 학생이 모였다. 나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10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에는 약 60-70 명의 학생이 모여있었다. 나는 많은 학생에 놀랐지만 서둘러 자리에 앉았고 주변 학생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다른 미주에서 온 학생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은 많지 않아 보였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모두 들떠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 문을 열기 전에는 미국 병원 실습을 온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간단한 실습 소개와 안내 사항이 있고 오리엔테이션은 곧 끝이 났다. 끝이 난 후, 우리는 각자 실습하는 과에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아야 했고, ID 카드가 없는 사람은 따로 ID 카드를 만들러 가야 했다. 나는 흉부외과에 연락하여 다음날 6 시반에 ICU 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같이 온 동기와 ID 카드를 만들러 갔다. 그렇게 첫 날은 짧게 마무리가 되었고, 병원 생활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사실 7 시반이나 8 시 출근을 예상했던 나로서는 6 시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을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 시간에 셔틀은 운영이 되지도 않았다. 결국 에모리 대학병원 근처 20 분거리에 살았던 나는 매일 아침 병원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늦어도 매일 아침 5 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도, 병원까지 걸어가는 것도 나에게 매우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힘들어서 몸에만 신경 썼던 처음과 달리 해가 뜨기 직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하늘과 선선한 공기,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느끼고 둘러보고 걷게 되면서 출근길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내가 한달 내내 5 시반에 일어나고도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첫 날 출근길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 병원 ICU 에 도착한 순간 이미 나는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다. 첫 날부터 힘들어서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ICU 에 들어갔다. ICU 에 들어간 순간, 나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ICU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 환자 당 하나의 병실, 그리고 각 병실마다 들어있는 컴퓨터, 모니터링 기계들, 그리고 담당 간호사. 현저히 다른 중환자실의 모습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우리 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둘러보는 것도 잠시 나는 들어가서 나의 담당 선생님을 찾아야 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봐서 찾아가니 선생님은 아침부터 열심히 환자 기록을 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나는 잠시 환자 기록을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환자 기록을 열어서 보니 환자는 약 10명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 심장 수술 후 케어를 위해 입원해있는 사람들이었다. 환자 기록을 보는 것에 익숙해질 즈음 선생님은 일어서면서 회진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회진은 나와 선생님, 그리고 다른 일본인 선생님이 함께 돌았다. 각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vital sign 과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던 선생님은 간호사와 지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었고,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였다. 모든 환자를 돌고 나서는 교수님께 연락을 하여 교수님과 다시 회진을 돌았다.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였고,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회진을 돌 때 각 환자에게 쓰여지는 시간은 길었고,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길었다. 회진은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이루어졌고, 항상 정성이 가득하였다.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환자들을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었다. 나중에 환자 앞에서 어떤 의사로 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회진이 끝난 후에는 항상 수술을 보러 갔다. 보통 하루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수술이 잡혀 있었다. 수술의 종류는 다양했는데 주로 CABG, VAD 삽입술, aortic arch repair 등의 수술을 자주 보게 되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먼저 수술실 칠판에 이름을 적어야 했다. 참여자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는 환자의 수술 준비를 도와야 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환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돕거나 제모 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다. 수술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학생으로서 최대한 도와야 했고, 실제로 수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 수술의 종류에 따라 스크립을 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졌고, CABG, VAD 삽입술과 같은 수술은 스크립을 설 수 있었지만, aortic arch repair 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수술에는 스크립을 설 수 없었다. CABG 는 매우 자주하는 수술로 심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수술이었다. 스크립을 서게 되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실 쉽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이 느껴졌다. 특히, skin 을 직접 단았을 때가 기억이 남는다. 처음에는 서툴어서 힘들어 했던 내가 나중에는 환자들의 상처가 조금 더 예쁘게 아물게 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 하였다.

사실 수술을 볼 때마다 놀랐다. 그것은 수술 자체가 요하는 정교함과 꼼꼼함 정도 때문이었다. 마치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무게감을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항상 견뎌내고 수술을 해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며 환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문득 나도 환자의 생명이란 무게감을 견디고 집중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수술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처음으로 table death 를 경험하였을 때였다. 사실 워낙 고령의 환자에서 위험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수술 중 죽음의 가능성은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환자 가족은 수술을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술을 하였다. 환자는 수술 중 두 번의 심장이 멈춤이 있었지만 심장이 결국 돌아왔기 때문에 수술은 잘 끝 마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슴을 닫기 직전, 환자의 심장은 다시 멈추었고, 결국 여러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상 내 인생 첫 table death 였다. 선생님들과 간호사는 익숙한 듯 환자의 죽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따라 일을 하였고, 나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만 보았다. 항상 여러 기계를 달고 나갔던 환자는 모든 기계를 떼어져 외로워 보였고, 몸은 씻겨지고 옷은 입혀져 있었다. 그 순간 환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환자는 눈 주위에 눈물이 묻은 것처럼 젖어 있었고, 무표정의 모습으로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당연하게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자가 그저 죽음으로 수술실 밖을 나간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지나가던 간호사는 죽음을 처음 보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간호사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익숙해질거야” 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씩씩한 말이기도 하지만 의사가 견뎌 내야하는 무게감이 아닐까 싶었다. 그것을 견뎌내고 성장해야 더 많은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익숙해진다고 해도 하나 하나의 무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항상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매일 매일은 달랐고, 하루 하루 내가 배워가는 것은 달랐다. 하루가 다르게 스스로 성장하는 내 자신이 신기하였고, 뿌듯했다. 이곳에서 나는 지식도 배웠지만, 직접 술기를 하며 실제로 경험을 하였고, 앞으로 어떤 의사가



Figure 1. 교수님과 함께



Figure 2. 레지던트 선생님과 학생들



Figure 3. 일본 선생님과 함께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2) Villa International

병원 실습은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면, villa international 에서의 일들은 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Villa international 은 내가 묵었던 숙소의 이름으로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걸어서 약 20 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에모리 대학교, 대학병원, CDC 등에 장기간 연수나



Figure 4. Villa international 친구들과 파티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편안하게 지내라고 집처럼 꾸민 곳이다. 이 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9 명 정도 였다. 태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국적이였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에서 왔기 때문에 모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생각도 달랐지만, 같이 함께할 때는 어릴 때로 돌아간 것처럼 재미있게 놀고 떠들었다. 문화는 다르지만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비슷했던 것 같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 때 병원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이 잊혀졌다. 우리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파티에도 함께 가서 놀았으며 모여서 카드 게임, 탁구 등 많은 놀이를 함께 즐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고 웃었다.

나는 이들과 함께할 때 즐거워서 좋기도 하였지만 이들을 통해 나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여 좋았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배워야할 점이란 생각이 매번 들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면 나 또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였다.

이들과 함께했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날은 7 월 4 일 독립기념일이다. 미국에서 독립 기념일은 국경일로 모두가 쉬는 날인데, 이 날은 villa international 식구들과 함께 피크닉 파티를 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였다. 우리는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피크닉 파티를 하고,



Figure 5. 독립기념일 올림픽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불꽃놀이는 9시 45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 갔던 우리는 올림픽 공원에 앉아서 공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9시 30분이 되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빗방울이 거세지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비가 거세게 오면서 사람들은 모두 나무 밑으로 숨었다. 일기예보가 잘못되어 사람들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비를 맞으면서도 이 상황이 웃기고 재미있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흠뻑 비를 맞은 순간이 언제 있었던가? 그 순간, 멀리서 불꽃놀이가 취소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비를 흠뻑 맞아 즐겁기도 했지만, 이렇게 불꽃놀이도 못보고, 비만 맞고 오늘 하루가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고서는 갑자기 슬퍼졌다. 모두가 서로 끌어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보니 정말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치는 그 순간 환호성과 함께 불꽃놀이가 시작했다. 그 날의 비와 불꽃놀이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작은 추억 하나 하나가 모여 애틀란타에서의 시간이 더욱 그리워지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이 친구들에게 고맙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

(3) 부록-애틀란타 관광(조지아 아쿠아리움, 코카콜라 박물관), CDC 체험기

병원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애틀란타에 함께 온 동기들과 downtown 관광을 하러 갔었다. 처음 갔던 곳은 조지아 아쿠아리움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조지아 아쿠아리움은 정말 말 그대로 매우 컸다. 그 크기만큼 볼거리는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고래,



Figure 6. 조지아 아쿠아리움

돌고래, 상어, 각종 물고기, 물개 모두 눈길을 사로 잡았고, 각종 쇼는 스케일이 컸다. 직접 물고기나 불가사리 등을 만져보는 체험관도 있었고, 알 벤 해마도 볼 수 있어 한 번도 경험해보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재미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서 다 보려면 하루도 모자라는 듯 했다. 결국 우리는 보고 싶었던 몇 가지만 보고 다음 관광코스ro 넘어갔다.

다음으로 갔던 곳은 코카콜라 박물관이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 비밀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코카콜라가 왜 전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다양한 콜라 등 음료를 무료 시식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인기가 매우



Figure 7. 코카콜라 박물관

많았다. 나도 다양한 종류의 콜라를 맛보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마셔서 배불러서 더 마실 수 없었다. 너무 아쉬웠다. 그렇지만 코카콜라에 대한 좋은 추억을 안고 가게 되었다. 괜히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만나면 더 친근한 느낌을 받는 것은 아마 코카콜라 박물관을 갔다 와서 인 것 같다.

하루는 귀가 길에 에모리 대학병원 옆에 있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연방 보건 복지부 산하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David J.Sencer CDC Museum 을 방문하였다. 영화에서 가끔 지구의 전염병이나 외계인의 virus 에 대항하는 곳으로 표현되기도 하여 관심이 있었던 곳이었다.

CDC 는 "24/7: Saving Lives, Protecting People"라는 슬로건으로 1942 년 말라리아가 창궐했던 남부 애틀랜타 시의 '국방 말라리아 통제 활동 연구소'로 설립되었다가 2 차 세계 대전시 전염병 예방과 통제로 그 기능이 확대 되었다. 1946 년 전염병 센터로 개편되어 말라리아 이외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예방사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성병 및 결핵 등 공중 보건 위생 업무도 담당하여 영역을 넓혀 나가 1992 년 현재의 '질병통제 예방센터'로 성장하게 되었다.

CDC Museum 에는 그 역사가 담겨 있었고, CDC 가 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CDC 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AIDS 에서부터 최근 세계의 건강을 위협했던 Zika virus, Ebola virus, SARS, 신종 Flu 등 많은 전염병 퇴치에 힘을 써왔다. 특히, 각 전염병 퇴치를 위해 썼던 기계, 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CDC 는 인간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우리나라에 있었던 MERS 사태가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각종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함께 환경, 위생 개선, 백신 개발, 연구를 통해 함께 협력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의사의 관계만 생각해왔던 나로서는 공중보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여전히 애틀란타가 보고 싶고 그립다. 애틀란타의 나무들, 하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립다. 그래서 아마 애틀란타에서의 한 달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 미래의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이 밑거름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 의사가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미국 병원 실습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주신 미주 의대 동창회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안겨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